

# “美, 올해 성장률 3.5% 예상”

앨런 사이나이

트럼프 확장 재정정책 고성장·고물가·고주가 견인... “2019년 이후에도 경기 확장국면 예상”

미국의 경기전망 전문가 앨런 사이나이(Allen Sinai) 박사(전 리먼브라더스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노믹스’로 인해 미국이 단기적으로 3% 대의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이나이 박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한 미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3.5%까지 예상되고 있다”며 “2019년 이후에도 경기가 확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이나이 박사는 단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미국의 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매년 미국 정부는 매년 1000억 달러 정도의 부채를 통해 매년 5000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2~3년간 지속적으로 지출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 0.5%포인트의 경제 성장이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고물가가 나타나고 주가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이나이 박사는 “기존 물가상승률은 1.5%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2.5% 수준을 예상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연준은 금리를 더 빠르고 일찍 올리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분기마다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미국 주식시장은 앞으로 고



드론쇼 코리아 개막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드론쇼 코리아'를 찾은 관람객들이 대한항공 부스에 전시된 무장운용 무인 헬기,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드론, 차세대 스텔스 무인전투기 등 다양한 군용 무인기를 구경하고 있다.

점을 찍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성장·고물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강달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강달러가 계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잉 투자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사이나이 박사는 “금융사의 과잉 투자와 지출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와 대체제가 왔는데 지금은 그정도 수준이 과잉 요소는 없다고 본다”며 “현재 요건으로 보면 그때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정치 논리에 경제가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폭력사태 등이 더

큰 돌발변수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불허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금융인, 기업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 두명의 연준 위원을 새로 연준위원장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학자는 아닐 것이고, 기업이나 은행 부문에 종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 보험상품 ‘해피콜’ 질문 선택형으로

금감원, 불완전판매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시행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렸는지 확인하는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이 더욱 상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해피콜 방식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해피콜은 보험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이후 상품 주요내용의 설명여부 등에 대해 계약자와 투자자에게 전화해 확인하는 절차다.

하지만 질문이 “예” 또는 “아니오” 대답을 요구하는 단답형 형식으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정확히 상품에 대해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곤란했다. 이에 금융회사가 계약상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해피콜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회사가 필요한 부분만을 설명하고 계약자는 “예”로만 대답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대답할 수 있는 선택형 중심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긍정적 답변 위

주로 돼 있는 질문은 예·아니오 답변이 혼합되도록 변경한다.

예를 들어 압 보험의 면책기간을 묻는 질문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압진단 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으셨나요?”에서 “압진단 시 보험금의 50%를 받는 기간은 가입 후 몇 년 동안 인가요?”로 바뀌는 식이다.

민약 원금손실 가능성 등 중요사항 답변이 부적합할 경우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된다. 즉시 청약 철회 가능하고 고객이 철회하지 않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재방문해 추가 설명한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10월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 3개월간은 시범운영을 벌인다.

금감원은 2018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해피콜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불완전판매비율도 개발할 방침이다.

기존 불완전판매비율 항목에 추가적으로 해피콜을 통한 계약반송과 청약 철회, 설명보완 실적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뉴시스

# 카드 한눈에 ‘카드다모아’ 이달 말 시작

카드사가 주력 상품 3개씩 올려... 실효성 의문

카드사의 대표 상품을 선별해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카드상품 통합조회 시스템 ‘카드다모아’ 서비스가 이달 말 시작된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9일 카드다모아 서비스가 협회 공식실에 추가된다.

카드다모아에는 카드사 8곳에서 자사 주력 상품으로 선택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3개씩 올려놓을 예정이다. 대표 상품을 간편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카드 포털과 차별성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

다. 이미 ‘카드고릴라’ 등 민간 카드포털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카드를 선별하거나 부가서비스 혜택 등을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해주고 있다.

더욱이 공식 대상이 카드사가 추천하는 상품이어도 또 하나의 광고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보다 카드사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만 교묘하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감원도 시범서비스 운영이라며 몸을 사리고 있다. 한계는 예견됐다. 카드다모아는 별도의 서비스보다 ‘금융상품 한눈에’의 보완 조치로 출발했다. /뉴시스

#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내달 26일 발표 초청장 발송

LG전자가 19일 세계 각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행사 초청장(Save the date, 그날을 비워 두세요)을 발송했다.

LG전자는 MWC 2017 전시회 개막 하루 전인 2월 20일 낮 12시(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 이른바 G6 공개행사를 진행한다.

LG전자는 초청장을 움직이는 사진으로 제작했다. 잔잔한 호수 위 밤하늘에 쏘아 올린 폭죽을 따라 화면이 점점 커지다가 18:9 비율에 이르면 폭

죽이 화려하게 터진다.

‘See More, Play More(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즐기세요)’라는 소개 문구는 차기 전략 스마트폰이 편리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다양하게 갖췄다는 점을 강조한다.

LG전자 차기 전략 스마트폰은 화면의 세로와 가로 비율이 18:9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용자 경험(UX)을 담았다. 고해상도(1,440X2,880)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1인치당 화소수(Pixel Per Inch, PPI)가 564개에 이른다. /뉴시스

# 기아차, ‘2017 K7’ 출시... 안전·연비 향상



주행 조향 보조·부주의 운전 경보 시스템 탑재  
2.2 디젤 14.4km/l, 2.4가솔린 모델 11.0km/l

기아자동차는 19일 안전사양을 강화하고 연비를 향상시킨 2017년형 K7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2017 K7’은 첨단 주행·안전 기술 신규 탑재, 고급 외장 사양 확대 적용, 2.2디젤 모델 ISG 신규 적용 및 2.4가솔린 모델 배터리를 충전 효율 개선을 통한 연비 향상 등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11월 5000대 한

정으로 출시했던 ‘리미티드 에디션’을 ▲2.4가솔린/2.2디젤 모델에 ‘리미티드’ ▲3.3가솔린 모델에 ‘리미티드 플러스’로 상설화 했다.

2017 K7은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 차선을 감지하고 스티어링 휠을 제어해 차선을 유지하도록 보조하는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 패턴이 감지되면 운전자의 휴식을 유도하는 부주의 운전 경보 시스템 등 2가지 첨단 주행·안전 기술을 새로 탑재했다.

또 크롬 아웃사이드 미러를 기본 적용하고, 풀 LED 헤드램프와 19인치 닥스퍼터링 휠을 전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2 디젤 모델에 공회전 제한 시스템을 추가해 불필요한 엔진 구동을 최소화시키고 정숙성을 강화하는 한편, 2.4가솔린 모델에는 수명이 길고 충전 효율이 개선된 배터리를 신규 적용했다.

클러치 타입의 에어컨 컴프레서를 적용해 에어컨 미가동시 컴프레서

미구동으로 불필요한 엔진 부하를 저감시켰다. 가변 오일펌프 적용으로 엔진 오일 공급량을 차량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2 디젤 모델의 연비는 18인치 타이어 적용시 14.4km/l, 2.4가솔린 모델의 연비는 11.0km/l를 달성했다.

동급 최초로 미러링크와 연동된 기아 T-맵을 적용했고, ‘애플 카플레이’와 뒷좌석 파워 아웃렛, 충전용 USB 단자를 장착했다.

가격은 주력트림인 2.4가솔린 모델의 경우 3010만~3290만원, 3.3가솔린 모델의 경우 3560만~3975만원으로 책정했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